

범죄 뉴스 노출과 다문화수용성

위험지각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허윤철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수료**

임영호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 연구의 목적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에 따라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폈다. 또한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범죄 뉴스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혔다. 분석 결과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각에는 다양한 정보원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1). 대화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과 대면 대화를 통한 접촉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2). 담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사회 수준의 위험지각은 완전매개(full mediation)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문제 3).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적 함의와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KEYWORDS 문화계발효과, 차별적 영향 가설, 비개인 영향 가설, 다문화, 범죄 뉴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4492).

** ych0719@gmail.com, 제1저자

*** yhoim@pusan.ac.kr, 교신저자

1. 문제 제기

미디어는 단순히 사회 현실을 ‘다시 보여 주는(re-present)’ 보조적 수단에 그치지 않는다. 사이드(Said, 1978/2000)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동양에 대한 서구 사회의 묘사가 서양의 동양에 대한 우위를 정당화하는 지식/권력(power/knowledge) 체계와 결합되어 있다고 밝혔다. 서구 미디어의 이슬람 문화에 대한 왜곡된 재현과 편향성 역시 이를 잘 보여 주는 사례다. 샤힌(Shaheen, 2012)의 연구는 지난 100년 동안 제작된 할리우드 영화가 무슬림과 이슬람교를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구시대적인 문화적 타자로 묘사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포스터 등(Foster et al., 2011)은 호주의 미디어들이 호주 출생 무슬림과 아랍계 시민까지도 근본주의적이고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사회 내 소수집단에 대한 보도는 흔히 자극적인 소재와 연결되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골딩과 미들턴(Golding & Middleton, 1979)은 영국 미디어에서 복지 이슈는 범죄나 사기 같은 문제와 연루되었을 때만 보도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경향은 이주민 관련 이슈에서도 나타나는데, 헤인스 등(Haynes et al., 2006)은 아일랜드 신문이 이주민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사기, 범죄, 무질서, 전염병 같은 이슈와 연관 지어 이주민을 사회적 위협으로 ‘타자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다수의 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도덕적 성숙과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 통하기 때문에 주류 언론이 직접 외국인과 이주민을 사회적 혐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부각하는 사례는 드물다(전의령, 2015). 그 대신 복지 이슈에서 ‘자격 있는 빈민’과 ‘자격 없는 빈민’이라는 이분법(Golding & Middleton, 1982)으로 복지 이슈에 대한 반감을 확산시킨 것처럼 주류 미디어는 ‘좋은 무슬림’과 ‘나쁜 무슬림’의 이분법을 통해 사회 내 소수집단에 대한 불만을 교묘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Mamdani, 2005).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인식에서 ‘모범 집단’과 ‘문제 집단’(엄한진·이선미, 2006), ‘선량한 이주민’과 ‘불량한 이주민’(전의령, 2015)과 같은 이분법이 작용하고 반다문화 정서는 ‘문제 집단’, ‘불량한 이주민’과 같은 상징을 통해 표출된다. 이 상징은 비록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수집단을 주변화하고 낙인을 찍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일부 외국인이나 이주민이 일으키는 범죄 사건이 반다문화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임도경과 김창숙(2011)의 연구는 다문화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사실 측면에서 외국인 범죄의 가능성은 과장된 것이다. 한국에서 외국인에 의한 5대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외국인 범죄율은 내국인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최영신 외, 2012). 사람들의 외국인 범죄에 두려움은 객관적 피해 가능성에 기초한다기 보다는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지각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범죄 현상은 사람들이 직접 경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경험이나 간접 경험에서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허운철·임영호, 2015). 따라서 외국인 범죄가 사람들의 다문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때에는 미디어의 영향을 좀 더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언론학 분야에서도 미디어의 외국인과 이주민 재현 문제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축적되었다. 그러나 미디어 재현의 실제적 효과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른 재현 효과의 차이라든지 매개변인의 영향 등 미디어 효과가 발생하는 복잡한 과정을 정교하게 분석한 실증적 연구는 더욱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미디어의 범죄 뉴스 보도가 수용자의 다문화 현실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커뮤니케이션 효과론의 측면에서 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이 수용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고 예측하는 대표적 이론은 문화계발 이론(cultivation theory)이다. 외국인 범죄 이슈는 미디어에 의해 '매개된 경험'의 역할이 매우 큰 영역으로 문화계발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에 주안을 두어 외국인 범죄 뉴스가 수용자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통적인 문화계발 이론이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좀 더 다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맞춰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따라 이 효과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미디어의 문화계발 효과가 어떠한 인지심리적 과정을 거쳐 수용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포함해서 미디어 효과의 작동 과정을 좀 더 입체적으로 분석했다. 즉, 수용자의 위험지각을 개인 수준과 사회 수준으로 구분한 후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두 위험지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탐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 위험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범죄 뉴스 노출과 다문화수용성, 그리고 위험지각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외국인 범죄 뉴스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 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범죄와 반다문화주의

제노포비아(Xenophobia)란 외국인이나 이방인에 대한 비이성적인 혐오를 뜻한다. 그동안 제노포비아의 발생 원인은 경제난이 커질수록 제노포비아가 커진다는 불행 이론(misery theory), 외국인의 유입이 늘어날수록 제노포비아도 커지게 된다는 집단갈등 이론(group conflict theory), 정치 엘리트의 선동에 따라 제노포비아도 커진다는 엘리트선동 이론(elite incitement theory) 등으로 설명했다(고상두·김예슬, 2012; Wendt & Rubin, 2009). 최근에는 국제적인 테러 범죄 위협이 이주민에 대한 적대적 태도와 반다문화 정서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테러 범죄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 사례로 9·11 테러를 꼽을 수 있다. 골드버거(Goldberger, 2004)는 9·11 테러 전후 미국 잡지의 이주민 보도 프레임을 비교 분석했는데, 테러 발생 전에는 이주민을 ‘필요한’ 집단으로 보도하던 잡지들이 9·11 이후에는 ‘두려운’ 집단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로게밴드와 블리겐썬트(Roggeband & Vliegenthart, 2007; Vliegenthart & Roggeband, 2007)도 9·11 테러 이후 네덜란드 의회 기록과 신문 기사가 모두 무슬림 이주민을 사회적 위협으로 묘사하는 경향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밝혔다.

테러와 같은 조직적 범죄뿐만 아니라 개인이 일으킨 일반 범죄 역시 다문화사회에 대한 불만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례로 2012년 중국인 동포의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을 국내 언론들이 자극적인 방식으로 보도하는 바람에 ‘조선족’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나빠지고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에 대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진 사례를 들 수 있다. 당시 국내 언론은 가해자를 낯선 이방인으로 규정하고 타지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부추기는 보도로 사건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허찬행·심영섭, 2015).

범죄 사건에서는 사람들의 직접 경험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주로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에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허윤철·임영호,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연구는 매스미디어가 이주민과 소수 집단의 범죄를 다룰 때 상당한 편향을 보인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한다. 세계에서 이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캐나다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주류 언론들이 소수 인종과 비(非)백인 집단을 범죄나 일탈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는 결과가 나왔다(Fleras & Kunz, 2001; Jiwani & Young, 2006; Mahtani, 2008). 최근 박과 동료들(Park et al., 2012)은 미국에서

한국계 이민자가 저지른 2007년 버지니아 공대 총기 사건과 1999년 백인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콜럼바인 총기 사건 보도를 비교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콜럼바인 사례에서는 신문이 가해자의 인종 정보를 거의 포함하지 않은 반면, 버지니아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인종 정보와 소속 집단에 관한 내용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스미디어는 범죄자가 사회 내에서 소수 집단에 속할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로 범주화하여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박재영 등(2009)은 버지니아 총기 사고 등의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과 미국 신문의 의견 기사에 나타난 서술 방식과 귀인 패턴의 차이를 살폈다. 그 결과 한국 신문이 미국보다 공동체 중심적 서술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귀인 패턴에서도 미국 신문은 행위자의 기질이나 성격과 같은 내부적 요인을 강조한 데 비해, 한국 신문은 행위자 주변의 맥락 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한국 신문에서도 외국인과 이주민 범죄 사건을 다룰 때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문제로 귀인시켜 보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편향된 보도 경향은 다문화사회에서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하며, 사회 불안의 책임을 소수집단에 전가하고 타자의 배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다. 아파두라이(Appadurai, 2006/2011)는 ‘우리’(동질성)라고 규정한 다수 집단이 ‘그들’(이질성)로 전형화한 타자 집단을 가르고 타자를 배제하는 과정을 약탈적 정체성(predatory identities) 개념으로 설명한다. 주류 집단이 스스로 위협받는 다수라고 느끼며 소수 집단을 국가의 순수성과 전체성을 오염시키는 집단으로 규정하면 약탈적 정체성이 나타나기 쉬운 조건이 조성된다. 소수 집단에 대한 매스미디어의 왜곡되고 부정적인 묘사와 재현 역시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 감정 조성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2) 외국인 범죄 뉴스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건국 초기부터 다양한 인종과 문화로 구성된 이민자 국가인 미국, 캐나다 등과 달리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 진입이 매우 늦었고 사회적으로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편이다. 비록 정식 노동자가 아니라 연수생 신분이지만 한국에 외국 인력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외국 인력 산업기술 연수 제도가 실시된 1991년부터다(채형복, 2007). 이처럼 짧은 다문화 역사 때문에 서구 다민족 사회에 비해 한국 사회는 민족 갈등이나 종교 갈등 등 집단 간 갈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 대신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과 편견 수준이 높고 이러한 문제가 다문화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강휘원, 2006).

또한 한국 사회에서는 조직적 테러 범죄보다 일상적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반다문화 정서를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강진구(2012)가 반다문화주의 인터넷 카페의 회칙과 강령, 게시판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수가 외국인 범죄를 과장하여 유포하고 있었으며, 외국인을 위협적인 존재로 부각해 제노포비아를 부추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도경과 김창숙(2011)의 연구에서도 권위주의, 자민족 중심주의, 인종 차별, 외국인 혐오,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감 등의 선행 요인 중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가 다문화 인식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테러와 같은 조직적 성격의 범죄가 아니라 개인이 일으키는 일반 외국인 범죄 보도에 초점을 맞추어 범죄 뉴스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자 한다. 특히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미디어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규명과 이론화는 주로 문화계발 이론(cultivation theory)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문화계발 이론은 매스미디어가 구성하는 현실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초기 텔레비전 폭력 묘사에 관한 연구가 출발점이 되었다(Gerbner, 1969).

최근 노섭(Northup, 2010)은 TV 뉴스에 흑인 용의자가 실제 비율보다 많이 등장한다는 데 착안하고 문화계발 효과에 기초하여 TV 뉴스를 많이 시청하는 사람일수록 화면 속 흑인 용의자를 유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렌트와 노섭(Arendt & Northup, 2015)은 지역 뉴스 시청량이 많은 집단일수록 제시된 흑인 이미지와 관련하여 부정적 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은 빠르고 긍정적 단어에 대한 반응 시간이 느리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 결과는 실제 범죄 비율보다 부풀려진 외국인 범죄 보도가 외국인에 대한 무의식적 편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계발 이론은 텔레비전 폭력물의 효과에 관한 연구로 시작했지만, 이를 다양한 매체로 확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시도도 꾸준히 나왔다. 뮤직비디오와 록 음악(Sherman & Dominick, 1986), VCR(Dobrow, 1990), 케이블 방송(Cohen & Weimann, 2000; 하승태 외, 2008), 비디오 게임(Van Mierlo & Van den Bulck, 2004), 온라인 게임(Williams, 2006) 등을 비롯해 인터넷 환경에서의 문화계발 효과 검증도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이준웅과 장현미(2007)가 인터넷 이용 시간과 함께 인터넷 위험 요소에 대한 비자발적 노출과 자발적 노출을 예측변수로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이 현실 세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량은 강도, 살인 등에 대한 위험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비자발적 노

출이 살인과 강도 등에 대한 위협 인식에 큰 영향이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3) 범죄에 대한 위협지각, 미디어 효과와 다문화수용성

문화계발 이론에서 범죄 이슈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범죄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이 주로 실제 경험보다는 매스미디어를 통해 매개된 경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화계발 이론의 주창자인 거브너(Gerbner, 1969)는 미국 텔레비전 내용 분석을 통해 텔레비전의 폭력성을 지표화하였다. 이후 거브너와 동료들(Gerbner & Gross, 1976; Gerbner et al., 1980)은 수용자가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할수록 텔레비전 속의 상징세계에 가깝게 현실 지각을 하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그 결과 텔레비전 중시청자 집단이 경시청자 집단보다 세계를 텔레비전이 구성하는 상징세계와 유사한 ‘비열하고 무서운 곳’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여러 후속 연구는 시청자의 인구·사회통계적 특성과 시청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문화계발 효과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Potter, 1986; Potter & Chang, 1990). 스나이더와 라우즈(Snyder & Rouse, 1995)는 관련 정보를 접하게 되는 채널에 따라 에이즈의 위험성에 대한 수용자 지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를 차별적 영향 가설(differential impact hypothesis)로 명명하였다. 최근 소와 동료들(So et al., 2011)은 어떠한 미디어 장르를 통해 흡연 문제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수용자의 지각이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입증했다. 국내에서는 신종 플루(차동필, 2010), 발암 물질(좌보경 외, 2013) 등의 위험 이슈에 차별적 영향 가설을 적용하여 다양한 미디어 노출과 수용자의 위협지각의 관련성을 살피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어떤 미디어를 통해 신종 플루나 발암 물질 이슈를 접촉하는지에 따라 수용자의 위협지각이 어느 정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한편 미디어가 수용자 지각에 미치는 문화계발 효과는 개인 수준(personal level)과 사회 수준(societal level)에서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논의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타일러(Tyler, 1980; 1984)는 범죄 정보를 친구나 가족, 이웃들과의 대화, 혹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접촉했는지에 따라 범죄에 대한 수용자의 위협지각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후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은 논의를 좀 더 정교화하여 수용자의 위협지각은 개인 수준과 사회 수준의 지각으로 나눌 수 있으며 매스미디어는 주로 사회 수준의 위협지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즉, 개인적 연결망과 대면 대화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사회적으로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에 영향

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후 머츠(Mutz, 1998/2000)는 개인적 연결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여론 선도자(opinion leader)의 역할을 강조한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 Lazarsfeld et al., 1968/2015)의 개인적 영향(personal influence) 가설과 대비시켜 매스미디어의 차별적 영향력은 개인의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는 추상적인 수준의 사회적 판단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비개인적 영향(impersonal influence) 가설을 정식화하였다.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보건 관련 위험 이슈(Morton & Duck, 2001; Park et al., 2001; Slater et al., 2015; 좌보경 외, 2013; 차동필, 2010), 원자력 위험과 같은 사회적 안전 이슈(Stapel & Velthuisen, 1996; 김준홍, 2011), 정치적 여론에 대한 지각(Mutz, 1989; Mutz, 1992), 사회보장이나 실업 등의 사회적 이슈(Joslyn & Haider-Markel, 2002; 차동필, 2011), 범죄 이슈(Guo et al., 2001; Shrum & Bischak, 2001; 이강형, 2013; 허윤철·임영호, 2015)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다루어져 왔다.

문화계발 이론의 맥락에서 이 연구와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 연구들을 좀 더 살펴보면 먼저 롬머 외(Romer et al., 2003)는 범죄 보도에 많이 노출된 수용자는 사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검증하면서 특히 범죄 보도 빈도가 높았던 해에는 범죄 발생률이 낮은 지역 거주자들이 오히려 더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배경 변인과 미디어 이용 변인이 수용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허윤철과 임영호(2015)의 선행 연구에서는 매스미디어는 범죄에 대한 수용자의 개인 수준 위험지각보다는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더 두드러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반면, 손현정과 이종혁(2012)의 연구에서는 TV에서 성범죄 관련 보도를 많이 접한다고 하더라도 수용자의 실제세계에 대한 인식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미디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에서는 먼저 마스트로와 트롭(Mastro & Tropp, 2004)은 평소 흑인과 자주 접촉하지 않는 수용자들에게서 TV 시트콤이 재현하는 부정적 흑인 이미지의 영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와 비슷하게 정연구 외(2011)는 이주민 여성과의 접촉이 많은 수용자 집단에서 이주민 관련 뉴스의 부정적 고정관념 형성 효과가 더 작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현정 외(2013)는 다문화 콘텐츠 시청량이 많은 수용자일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는데, 특히 콘텐츠 중 영화 장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컸다. 한편 금희조(2011)는 소셜 미디어 이용이 다문화에 대한 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폈는데, 분석 결과 소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할수록 다문화에 대한 관용성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다양한 미디어와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 다문화수용성의 영향 관계를 동시에 살핀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미디어와 범죄 위험지각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외국인 범죄 뉴스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용자의 범죄 위험지각의 역할을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고자 한다.

3. 연구문제의 설정

지금까지 미디어의 폭력 재현이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핀 대표적인 이론인 문화계발 이론과 후속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인식 역시 직접 경험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간접 경험이나 매개된 경험에 의존할 개연성이 높다. 문화계발 이론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수용자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미디어가 구성하는 상징세계와 유사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Gerbner et al., 1980). 범죄 보도에 많이 노출될수록 사회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Romer et al., 2003), 특정한 집단에 대한 무의식적인 부정적 편견도 강화될 수 있다(Arendt & Northup, 2015).

특히 차별적 영향 가설에 따르면 어떤 미디어와 콘텐츠 장르를 통해 정보를 접촉하는 지에 따라 수용자의 지각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Snyder & Rouse, 1995). 미디어와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수용자 지각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대체로 정보의 '생동감'과 '자기 관련성'의 차이 때문인데,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생생하고(vivid), 자신과 관련성이 높을수록(self-relevant) 개인 수준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게 된다(Stapel & Velthuisen, 1996). 따라서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를 접촉하게 되는 정보원천에 따라 수용자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외국인 범죄 뉴스의 정보원천에 따라 수용자의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범주화하여 각 유형 별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앞서 살핀 비개인적 영향 가설에 따

르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보 접촉은 수용자의 사회 수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대면 대화를 통한 정보 접촉은 개인 수준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Tyler & Cook, 1984). 허윤철과 임영호(2015)에 따르면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노출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외국 범죄 뉴스 노출 모두 수용자의 개인 수준 위험지각보다는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매스미디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노출이 대면 대화 보다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더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수용자의 위험지각이 다문화에 대한 태도 형성이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후속 효과에 대한 탐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후속 효과 규명은 미디어 노출이 수용자 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지각이 실제세계에 대한 태도로 이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위험지각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대상으로 수용자의 커뮤니케이션 패턴을 유형화하여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은 매스미디어와 대면 대화의 효과 차이뿐만 아니라 기존의 매스미디어와 다른 매체 특성을 지닌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요인 분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유형을 범주화하고, 도출된 요인들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2>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2: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다시 말해 수용자의 위험지각은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다문화수용성 사이를 매개하는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그동안 미디어 노출이 수용자의 현실 인식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검증은 문화계발 이론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지심리적 과정을 통해 문화계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손현정·이종혁, 2012).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수용자의 위험지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할 것이다. 이 분석은 외국인 범죄 뉴스가

어떠한 인지심리적 과정을 거쳐 사회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설명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안을 둔다. 매개효과 검증은 바론과 캐니(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며, 소벨 테스트(Sobel Test)를 통한 추가 검증을 실시하여 아래 <연구문제 3>에 대한 답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연구문제 3: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지각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4. 연구 방법

1) 표본 구성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2015년 5월 29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리서치 조사업체가 보유한 전국 8만여 명의 패널 중 설문대상자를 성별·연령별로 비례 할당하여 무작위 추출 후 모바일로 설문지를 보내 조사를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변인		빈도 (%)	변인		빈도 (%)
성별	남, 여	각 150 (50.0)	가구 소득(월)	100만 원 미만	6 (2.0)
연령	20대	76 (25.3)		100~200만 원 미만	26 (8.7)
	30대	74 (24.7)		200~300만 원 미만	77 (25.7)
	40대	76 (25.3)		300~400만 원 미만	47 (15.7)
	50대	74 (24.7)		400~500만 원 미만	57 (19.0)
				500~600만 원 미만	33 (11.0)
지역	서울	110 (36.7)		600~700만 원 미만	22 (7.3)
	경기도	78 (26.0)		700만 원 이상	32 (10.7)
	광역시	76 (25.3)			
	기타	36 (12.0)			
학력	초등학교 졸	1 (.3)	정치 성향	보수	31 (10.3)
	중학교 졸	2 (.7)		약간 보수	67 (22.3)
	고등학교 졸	57 (19.0)		중도	126 (42.0)
	대학교 재학 또는 졸업	211 (70.3)		약간 진보	63 (21.0)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29 (9.7)		진보	13 (4.3)

실시하였으며, 설문 프로그램은 앞 문항에 응답을 해야 다음 설문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설계가 되었다($n = 300$). 설문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정보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변수의 측정

이 연구에서는 <연구문제 1>을 해결하기 위한 종속변인으로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을 <연구문제 2>와 <연구문제 3>을 해결하기 위한 종속변인으로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였다. 독립변인으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량을 측정하였고, 응답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외에 수용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을 포함하였다. 사용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1) 종속 변수

분석에 포함된 종속변수는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과 ‘다문화수용성’이다. 첫 번째 종속변수인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은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개인 수준 지각과 사회 수준 지각은 머츠(Mutz, 1998/2000)의 비개인적 영향(impersonal influence)에 관한 논의를 따른 것이다. 개인 수준 지각은 자신을 비롯한 직접 대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각을 의미하고, 사회 수준 지각은 가시적 영역 너머에 있는 사회 현실에 대한 지각을 의미한다. 위험지각의 측정은 폭행, 강도, 강간, 살인 사건의 발생 가능성을 묻는 질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폭행, 강도, 강간, 살인은 문화계발효과 이론에서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질문 문항이다(Gerbner & Gross, 1976; 이준웅·장현미, 2007).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각 범죄 유형 별로 개인 수준(예, “나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외국인에 의해 ○○범죄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과 사회 수준(예, “우리 사회에 외국인에 의한 ○○범죄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개인 수준 위험지각 측정 문항의 응답의 평균치로 구성된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2.68($SD = .988$), 사회 수준 위험지각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3.10($SD = .869$)으로 응답자들의 사회 수준 위험지각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보다 높았다. 측정 문항 간 크론바흐 알파값은 개인 수준 위험지각 .964, 사회 수준 위험지각 .935로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종속변수인 ‘다문화수용성’은 2010년 사회통합위원회가 개발한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민문숙 외, 2010) 문항을 활용하였다. 다문화수용성은 다양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과 관계성 차원의 다문화수용성으로 구분되는데, 각 차원의 하위 요인으로 인지, 정

표 2. 다문화수용성 측정 문항

요인		문항	M	SD	신뢰도
다양성 차원	인지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2.48	.938	.813
		동남아 출신 외국인근로자는 누군가 감독을 해야만 일을 제대로 할 것이다[역코딩].	2.92	.940	
	정서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될까 우려 된다[역코딩].	2.77	1.004	
		피부색이 다르면 국적 취득이나 한국어 능력과는 상관없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역코딩].	3.25	1.011	
	행동	공공장소에서 외국 이주민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언어로 떠들고 있다면 한국 사람들이 그러는 것보다 눈살을 더 찌푸리게 된다[역코딩].	3.16	1.065	
		이웃에 사는 이주민들이 특이한 냄새가 나는 자신들의 음식을 요리 하면 좋게 이야기 하기는 힘들다[역코딩].	3.31	.893	
관계성 차원	인지	한국인이 이주민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주민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역코딩].	2.92	1.005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이주민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역코딩].	2.93	.979	
	정서	나는 이주민들이 많은 지역에 가는 것이 꺼려질 때가 많다[역코딩].	2.75	1.049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이주민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역코딩].	3.42	1.052	
	행동	동남아 출신 이주민이 한국인에게 자국의 언어나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는 기회가 있으면 참가해서 배우고 싶다.	3.16	.923	
		학교나 직장에서 연변출신 조선족이나 탈북자를 동료로 만나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2.92	.862	

서, 행동 문항을 각 2문항씩 선정하였다. 설문은 각 진술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4.67($SD = 3.00$)이었으며,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은 .813이었다. 구체적인 측정 문항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량', 그리고 인구·사회통계적 변인 외의 수용자 배경 변인에 해당하는 '외국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였다.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량을 측정하기 위해 플루서(Flusser, 1996/2001)의 담론형 매체(diskursive medien)와 대화형 매체(dialogische medien) 구분을 활용해 매체를 유형화하였다. 담론형 매

채널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여러 사람에게 분배하는 소통에 관여하는 매체를 뜻한다. 이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신문, 잡지, 영화 등을 담론적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매체로 보고 TV 뉴스, 시사 프로그램이나 생활정보 프로그램, TV 드라마, 신문이나 잡지 기사, 영화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량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대화형 매체란 수용자가 정보를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정보를 합성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매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터넷 기사의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통한 범죄 뉴스 접촉량을 측정하였다.

담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을 측정하기 위해 “당신은 아래의 매체를 통해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내용을 접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TV 뉴스,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TV 드라마, 신문 또는 잡지 기사, 영화에 대해 ‘거의 없음’에서 ‘매우 자주’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 매체별 평균은 TV 뉴스 3.55($SD = .828$),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3.32($SD = .822$), TV 드라마 2.69($SD = .897$), 신문 또는 잡지 기사 3.24($SD = .850$), 영화 3.05($SD = .935$)로 TV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빈도가 가장 높았다. 담론형 매체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3.16($SD = .656$)이었으며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은 .816으로 양호하였다.

대화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인터넷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톡스토리에 대해 담론형 매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각 매체별 평균은 인터넷 기사 댓글 3.15($SD = 1.119$),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2.72($SD = .994$), 블로그 3.60($SD = 1.014$), 트위터 3.69($SD = 1.056$), 페이스북 3.56($SD = 1.120$),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톡스토리 3.86($SD = 1.016$)으로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형 매체의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3.43($SD = .883$)이었고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은 .916으로 높았다.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량은 라자스펠트 등(Lazarsfeld et al., 1968/2015)이 대인 커뮤니케이션량 측정에 사용한 변수를 참고하였다. “당신은 다음의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외국인 범죄 관련 이야기를 듣거나 해 보셨습니까?”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친구나 이웃, 가족이나 친척, 업무상 아는 사람이나 동료 문항에 대해 ‘거의 없음’에서 ‘매우 자주’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별 평균은 친구나 이웃 2.42($SD = .938$), 가족이나 친척 2.21($SD = .968$), 업무상 아는 사람이나 동료 2.17($SD = .940$)로 친구나 이웃과의 대화에서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하는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량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2.27($SD = .855$),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값은 .885로 양호하였다.

표 3. 외국인 접촉 경험 측정 문항

요인	문항	M	SD	신뢰도
외국인 접촉 경험 ($M = 2.53, SD = .715$)	나는 길거리에서 외국인을 많이 보는 편이다	3.21	.834	.783
	나는 외국인과 대화를 해 본 경험이 많다	2.66	.998	
	나는 외국인과 자주 접촉하는 편이다	2.32	.903	
	나는 해외여행을 많이 한 편이다	2.42	1.043	
	나는 해외에 체류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다	2.06	1.088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선행 경험에 해당하는 현실에서의 외국인 접촉 경험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2012년 여성가족부의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안상수 외, 2012)에 사용된 문항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으로 <표 3>과 같은 진술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통합 변인의 평균값은 2.53($SD = .715$), 크론바흐 알파값은 .783으로 문항 간 신뢰도가 확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에 대한 분석 결과

<연구문제 1>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의 정보원천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각 회귀모형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수용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 각 정보원천 변인을 3단계에 걸쳐 투입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정치성향을 투입하였다. 인구·사회통계 변인 중 성별은 분석을 위해 남성을 기준변수로 하여 가변수(남성 = 0, 여성 = 1)로 처리하였다. 2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을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용자의 배경 변인에 해당한다고 보고 외국인 목적, 대화, 접촉 변인과 해외 여행, 체류 변인을 투입하였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총 14개의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매체 변인과 대면 대화량 변인을 투입하였다(<표 4> 참조).

응답자의 인구·사회통계학적 변인을 투입한 1단계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F(df = 5, 241) = 2.752$,

표 4. 수용자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범죄 뉴스 정보 원천이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개인 수준 위험지각			사회 수준 위험지각		
		$R^2(\Delta R^2)$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R^2(\Delta R^2)$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1	성별	.054	-.113	.079	.013	-.060	.356
	나이		-.136*	.046		-.021	.761
	학력		.025	.709		-.103	.139
	소득		.141*	.030		.043	.510
	정치성향		.044	.488		.050	.441
2	목적	.078 (.024)	.083	.218	.073 (.060)	.226***	.001
	대화		.078	.437		-.071	.483
	접촉		.042	.667		.041	.678
	여행		.011	.915		.088	.400
	체류		-.016	.868		-.025	.795
3	TV뉴스	.441 (.363)	.214*	.017	.462 (.389)	.421***	.000
	시사프로그램 · 생활정보프로그램		.067	.447		-.027	.753
	드라마		-.072	.295		-.004	.958
	신문·잡지		.174*	.038		.050	.538
	영화		.151*	.026		-.026	.695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140	.090		-.097	.228
	기사 댓글		-.115	.189		-.135	.116
	블로그		.060	.541		.178	.066
	트위터		.145	.223		.109	.353
	페이스북		.021	.821		.023	.802
	카카오톡 · 카카오톡스토리		-.213*	.027		-.143	.129
	친구나 이웃		-.001	.992		.090	.332
	가족이나 친척		.188*	.050		.139	.139
동료나 아는 사람	.157	.074	.108	.209			

*** $p < .001$, ** $p < .01$, * $p < .05$

$p < .05$),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df = 5, 241) = .656, p > .05$).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에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5.4%였다($R^2 = .054$). 독립변인 중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나이와 소득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이 많을수록 개인 수준 위험지각이 높았던 반면($\beta = .141, p < .05$), 나이는 적을수록 개인 수준 위험지각이 높았다($\beta = -.136, p < .05$).

2단계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유의하였으나($F[df = 10, 236] = 1.999, p < .05$),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df = 10, 236] = 1.866, p > .05$).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독립변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즉, 수용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은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3단계 분석에서는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회귀모형($F[df = 24, 222] = 7.298, p < .001$)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F[df = 24, 222] = 7.939, p < .001$)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14개의 정보원천 변인이 투입된 3단계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변인들의 공선성 통계량을 살폈는데, 각 변인의 공차한계값이 모두 .10 이상으로 다중공선성은 관찰되지 않았다($VIF < 10$). 각 회귀식에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핀 결과 개인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은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이 약 36.3%($\Delta R^2 = .363$),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에서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약 38.9%($\Delta R^2 = .389$)였다. 즉, 미디어와 대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는 TV뉴스, 신문·잡지, 영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과 가족·친척과의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가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카카오톡·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 중 TV뉴스($\beta = .214$)와 카카오톡·카카오톡스토리($\beta = -.213$)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컸는데, 두 미디어의 영향력의 방향은 반대였다. 즉, TV뉴스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범죄 위험지각이 높아진 반면, 카카오톡·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많이 접할수록 범죄 위험지각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는 TV뉴스($\beta = .421, p < .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도 여타 변인에 비해 매우 컸다. 따라서 TV뉴스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의 접촉은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각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연구문제 2>에 대한 결과

다음으로 매체를 유형별로 범주화하기 위해 적용한 담론형 매체와 대화형 매체 구분 (Flusser, 1996/2001)의 적절성을 요인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먼저 KMO 표준적합도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Bartlett's Test)을 통해 요인 분석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는데, 표준적합도는 .900, 바틀렛 구형성 검증 결과는 유의($p < .001$)한 것으로 나타나 11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리맥스 회전을 통한 주성분추출 방식으로 아이겐 값이 1 이상인 요인군을 추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첫 번째 요인에는 인터넷 기사 댓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카카오톡·카카오토토리가 포함되었고, 두 번째 요인에는 신문·잡지 기사, 시사프로그램·생활정보프로그램, TV 뉴스, 영화, 드라마가 포함되어 담론형 매체와 대화형 매체 구분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 0.50 이상, 공통성(communality) 0.50 이상의 기준(Hair et al., 2006)을 적용할 경우 일부 변인은 요

표 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매체 유형

	요인 1	요인 2	공통성
	대화형 매체	담론형 매체	
인터넷 기사 댓글	.836	.056	.701
트위터	.813	.436	.851
블로그	.811	.363	.790
페이스북	.775	.312	.698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페	.765	-.282	.665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토토리	.762	.464	.795
신문 또는 잡지 기사	-.723	.465	.739
시사 프로그램 또는 생활정보 프로그램	-.692	.542	.773
TV 뉴스	-.673	.574	.783
영화	-.663	.040	.442
드라마	-.629	-.080	.402
아이겐값	6,075	1,563	
변량비율(%)	55,231	14,211	
누적비율(%)	55,231	69,442	
신뢰도(Cronbach's α)	.916	.816	

요인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인선정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는데, 투입된 변인들이 개념적 논의에서 도출된 것이고, 문항 간 신뢰도 크론바흐 알파 값이 확보되었기에 통합 변인에서 제외하지 않고 분석에 그대로 포함시켰다.

〈연구문제 2〉로 설정한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에 따라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피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모형을 설정하여 인구·사회 통계 변인,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매체 유형 변인과 대면 대화 변인,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 변인을 4단계에 걸쳐 투입하였다(〈표 6〉 참조).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통계 변인에 해당하는 성별, 나이, 학력, 소득, 정치 성향을 회귀식에 투입하였는데, 회귀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df=5, 241) = 1.00, p > .05$). 2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외국인 접촉 경험 변인인 외국인 목격, 대화, 접촉 변인과 해외여행, 체류 변인을 하나의 변인(Cronbach's $\alpha = .783$)으로 통합하여 회귀식에 투입하였는데, 역시 회귀모형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df=6, 240) = 1.390, p > .05$). 즉 개인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외국인 접촉 경험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관찰되지 않았다.

3단계에서는 신문·잡지 기사, 시사 프로그램·생활정보 프로그램, TV 뉴스, 영화,

표 6. 수용자 개인 특성, 범죄 뉴스 접촉 매체 유형, 범죄 위험지각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단계	독립변인	다문화수용성		
		$R^2(\Delta R^2)$	표준화계수 β	유의확률
1	성별	.020	-.054	.411
	나이		.090	.191
	학력		.049	.479
	소득		-.085	.197
	정치 성향		.082	.209
2	외국인 접촉 경험	.034 (.013)	.123	.071
3	담론형 매체 접촉	.205 (.172)	-.180*	.028
	대화형 매체 접촉		-.068	.469
	대면 대화		-.367***	.000
4	사회 수준 위험지각	.290 (.085)	-.313***	.000
	개인 수준 위험지각		-.086	.281

*** $p < .001$, ** $p < .01$, * $p < .05$

드라마를 ‘담론형 매체’ 변인(Cronbach’s $\alpha = .816$)으로 통합하고, 인터넷 기사 댓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인터넷 커뮤니티·카페, 카오오톡·카카오토티를 ‘대화형 매체’ 변인(Cronbach’s $\alpha = .916$)으로 통합하였다. 또한 친구나 이웃과의 대화, 가족이나 친척과의 대화, 동료나 아는 사람과의 대화 변인 역시 ‘대면 대화’ 변인(Cronbach’s $\alpha = .885$)으로 통합하였다. 그리고 이 변인들을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식에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 3단계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df = 9, 237) = 6.807, p < .001$), 투입된 독립변인들의 변량은 종속변인의 17.2%($\Delta R^2 = .172$)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담론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변인과 대면 대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변인으로 모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 담론형 매체를 통해 외국인 범죄 뉴스를 많이 접촉하거나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면 대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노출($\beta = -.367$)은 담론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노출($\beta = -.180$)보다 다문화수용성에 두 배 이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담론형 매체보다 대면 대화가 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살피기 위해 회귀식에 두 위험지각 변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df = 11, 235) = 8.718, p < .001$), 독립변인들의 종속변인에 대한 설명력은 8.5%($\Delta R^2 = .085$)였다. 그리고 두 변인 중 사회 수준 위험지각($\beta = -.313, p < .001$)만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수용자들의 사회 수준 위험지각이 높아질수록 다문화수용성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다문화수용성은 나와 주변 사람들이 외국인 범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개인 수준의 외국인 범죄 지각 보다는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사회적 위험지각에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연구문제 3〉에 대한 결과

〈연구문제 3〉으로 제시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험지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살피기 위해 다문화수용성을 종속변인,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을 독립변인,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변인 중 대화형 매체 접촉은 수용자의 위험지각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담론형 매체 접촉과 대면 대화 변인만 독립변

표 7. 위험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독립 변인 1: 담론형 매체 접촉 매개변인 1: 사회적 위험지각		종속변인: 다문화수용성
		표준화계수 β
1단계:	담론형 매체 접촉 → 다문화수용성	-.302***
2단계:	담론형 매체 접촉 → 사회 수준 위험지각	.542***
3단계:	담론형 매체 접촉 → 다문화수용성	-.062
	사회적 위험지각 → 다문화수용성	-.443***
Sobel test(z-score)		4.264***
독립 변인 2: 대면 대화 매개변인 1: 사회적 위험지각		종속변인: 다문화수용성
		표준화계수 β
1단계:	대면 대화 → 다문화수용성	-.376***
2단계:	대면 대화 → 사회 수준 위험지각	.472***
3단계:	대면 대화 → 다문화수용성	-.185***
	사회적 위험지각 → 다문화수용성	-.405***
Sobel test(z-score)		5.046***

*** $p < .001$, ** $p < .01$, * $p < .05$

인으로 분석에 포함시켰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바론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방식에 따라 세 단계의 회귀분석에 의해 수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폈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지 검토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지 검증하였다. 회귀계수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은 소벨(Sobel, 1982)이 제안한 Z-test 방식으로 실시하였는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먼저 종속변인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결과 독립변인인 담론형 매체 접촉량과 대면 대화량은 각각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p < .001$). <연구문제 2>에서 살폈듯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매체 접촉이나 대면 대화의 증가는 다문화수용성이 낮아지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매개변인을 각 회귀식의 종속변인으로 설정한 후 각각의 독립변인을 투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인인 담론형 매체 접촉과 대면 대화는 매개변인인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앞서 〈연구문제 1〉에서 TV뉴스 시청이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각 정보원천을 더 큰 범주로 통합하여 독립변인으로 투입한 결과 담론형 매체 접촉과 대면 대화는 매개변인인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유의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매체 접촉이나 대면 대화량이 증가하면 사회적 위험지각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각 회귀모형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를 살핀 결과 담론형 매체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대면 대화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러나 독립변인인 대면 대화가 종속변인인 다문화수용성에 단독으로 회귀되는 경우에 비해 영향의 크기는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분석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full mediation)를 의미한다. 반면, 직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하더라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단독으로 미치는 영향에 비해 효과의 크기가 작다면 부분 매개(partial mediation)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매체 접촉과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 수준 위험지각은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독립변인인 외국인 범죄 관련 담론형 매체 접촉은 매개변인인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통하지 않으면 종속변인인 다문화수용성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 관련 대면 대화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사회 수준 위험지각은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범죄 관련 대면 대화의 증가는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통해 다문화수용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 있다.

6. 결론 및 논의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이후 다문화사회 진입이 가속화하면서 관련 연구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도 다문화사회에서 미디어의 역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미디어의 다문화 재현과 현실 구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꾸준히 축적된 반면, 미디어의 재현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다(예: 금희조, 2011; 박신영, 2014; 이현정 외, 2013; 정연구 외, 2011 등).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미디어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칠 수 있는 실제 효과를 체계적으로 밝혀 보고자 하였다. 특히 한국 사회의 반다문화 정서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되는 범죄 이슈에 초점을 맞추어 외국인 범죄 뉴스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될 결과와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문제 1>로 설정한 외국인 범죄 뉴스의 정보원천이 수용자의 외국인 범죄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 수용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나 외국인 접촉 경험에 비해 범죄 뉴스 접촉의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외국인 직접 접촉의 영향력은 올포트(Allport, 1954)의 접촉 이론(contact theory)에 기반하여 외국인과의 직접 접촉이 많을수록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두려움을 낮아진다고 설명하거나, 블래록(Blalock, 1967)의 집단위협 이론(group threat theory)에 근거해 외국인의 유입 증가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높인다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이 연구 결과에서는 외국인 직접 접촉이 범죄 위험지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위험지각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범죄 뉴스 접촉 변인이었는데, 이 변인들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의 약 36.3%, 사회 수준 위험지각의 약 38.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수용자의 인구·사회적 배경이나 환경적 요인보다는 미디어를 통한 매개된 경험이나 대화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리고 수용자의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는 TV뉴스, 신문·잡지, 영화, 카카오톡·카카오토티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 그리고 가족·친척과의 외국인 범죄 관련 대화 등 다양한 정보원천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는 TV뉴스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주변에서 외국인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에는 다양한 정보원천과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적으로 외국인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에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정보원천에 따라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차별적 영향 가설의 관점에서 살필 수 있다. 스테펠과 벨투이젠(Stapel & Velthuisen, 1996)은 전달되는 메시지가 생동감이 있고 수용자와 관련성이 높을수록 개인 수준의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이 연구 결과에서 영화가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전달되는 메시지의 생동감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척과의 대화를 통한 범죄 뉴스 노출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만 영향을 미친 이유는 수용자가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정보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신문·잡지를 통한 범죄 뉴스 노출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선행 연구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다. 콜먼(Coleman, 1993)에 따르면

같은 메시지라 할지라도 TV로 전달될 때보다 신문으로 전달될 때 사회 수준 지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신문·잡지를 통한 범죄 뉴스 노출이 사회 수준이 아니라 개인 수준 지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수용자가 신문과 잡지를 선별적으로 이용하는 패턴이 강화(민희·이원태, 2015)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신문과 잡지 수용자는 자신과 관련성이 높은 기사를 선별적으로 습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신문·잡지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한편 카카오톡·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은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여타 정보원천과 다른 특징을 보였다. 이는 ‘자기 만족형’ 또는 ‘자기 노출형’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비해 ‘사회 관계형’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자가 타인의 평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최미경·나은영, 2015). 즉, 여타 미디어와 정보원천에 비해 사회-관계적 성격이 강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인 카카오톡과 카카오톡스토리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메시지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여타 정보원천과 달리 카카오톡·카카오톡스토리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개인 수준 위험지각에 부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에서 외국인 범죄 뉴스를 접촉하는 커뮤니케이션 유형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결과, 커뮤니케이션 유형은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과 대화형 매체를 통한 접촉, 대면 대화를 통한 접촉으로 나뉘었으며, 대화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다문화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과 대면 대화를 통한 접촉은 수용자의 다문화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면 대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beta = -.367$)은 담론형 매체를 통한 뉴스 접촉($\beta = -.180$)보다 다문화수용성에 두 배 이상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연구 결과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측면에서는 담론형 매체를 통한 접촉보다 대면 대화를 통한 접촉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나 대인 커뮤니케이션의 영향력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고립적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담론형 미디어는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필요한 원천정보를 제공하며 대화의 많은 부분은 담론형 미디어가 제공하는 ‘공통의 매개된 경험’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용자의 개인 수준 위험지각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을 회귀식에 투입한 결과 사회 수준 위험지각만이 다문화수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연구문제 3>에서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위협지각의 매개효과 검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답론형 매체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사회 수준 위협지각이 완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면 대화를 통한 범죄 뉴스 접촉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는 사회 수준 위협지각이 부분적인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답론형 매체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사회 수준 위협지각을 경유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대면대화를 통한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은 사회 수준 위협지각을 경유하여 다문화수용성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사회 수준 위협지각의 매개를 거쳐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 연구의 가장 특징적인 발견이다. 이 결과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매개된 경험이 수용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한 지각을 자극하여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집합적이고 비가시적인 수준의 사회적 지각을 활성화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카츠와 라자스펠트(Katz & Lazarsfeld, 1955)가 제기한 개인적 영향 가설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 오피니언 리더와 대인적 연결망을 경유하여 수용자의 생활세계로 옮겨 가는 과정을 규명했다면, 머츠(Mutz, 1998/2000)의 비개인적 영향 가설은 미디어가 수용자의 추상적 공동체에 대한 지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회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주었다.

머츠(Mutz, 1998/2000)는 미디어의 영향력은 수용자가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영역의 이슈를 다루거나 가시적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 현실을 다룰 때 더욱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이는 드 보통(De Botton, 2014/2014)이 뉴스의 의미를 통찰하며 제기했듯이 뉴스가 개인 삶의 테두리 너머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인상과 공적인 삶의 풍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주장을 상기시킨다. 특히 간접 경험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범죄 이슈에서 미디어는 단순한 재현 수단이 아니라 수용자의 일차적 경험 대상 자체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들의 다문화수용성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다문화사회에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미디어가 외국인과 이주민 문제에 관해 좀 더 균형 잡히고 심층적인 재현을 제공할 때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수용자들의 뉴스 접촉

경로가 더욱 다변화하고 복잡해지는 만큼 범죄 뉴스 접촉 변인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매체 유형을 전통적인 매체인 담론형 매체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대화형 매체로 대별하고 다양한 매체를 망라하였지만, 현재 수용자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인터넷 기사를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설문 대상자를 성별, 연령별로 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대도시 거주자 비율이 높고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 비율이 높아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은 이주민 유입 패턴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매체 이용 양상을 비롯하여 외국인 범죄에 대한 위험지각과 다문화수용성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비교하는 연구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문화계발 이론은 미디어의 장기적이고 누적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가 수행될 때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연구가 수용자의 실제 미디어 접촉 정도가 아니라 자기 기술식 응답에 의존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수용자의 실제적 미디어 접촉과 이용 정도를 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구축되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연구의 방법론을 더 확장하고 변인 측정 방법도 더 엄격하게 개선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진구 (2012). 한국사회의 반다문화 담론 고찰: 인터넷 공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2호, 5~34.
-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20권 2호, 5~34.
- 고상두·김예슬 (2012). 러시아 제노포비아의 실태와 원인 분석. <아태연구>, 19권 1호, 157~180.
- 금희조 (2011). 소셜 미디어 이용과 다문화에 대한 관용: 연계형 사회자본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4호, 162~186.
- 김준홍 (2011).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원자력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6호, 253~276.
- 민무숙·이상수·김이선·김금미·조영가·류정아 (2010). <한국형 다문화수용성 진단도구 개발연구>. 사회통합위원회.
- 민희·이윤희 (2015). 유권자의 이념성향과 미디어 이용. <한국정당학회보>, 14권 1호, 157~176.
- 박신영 (2014). 다문화 관련 TV 프로그램 시청과 다문화 인식, 태도 및 제3자 효과. <한국방송학보>, 28권 6호, 79~119.
- 박재영·이완수·노성중 (2009). 한미(韓美) 신문의 의견기사에 나타난 한국 기자와 미국 기자의 사고 습관 차이. <한국언론학보>, 53권 5호, 268~290.
- 손현정·이종혁 (2012). 성범죄 보도가 여성 수용자의 사회적 현실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357~378.
- 이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엄한진·이선미 (2006). 전 지구적 맥락에서 본 한국의 다문화주의 이민논의. <한국사회학회 기타간행물>, 13~46.
- 이강형(2013). 농촌지역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용이 범죄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361~386.
- 이준웅·장현미 (2007). 인터넷 이용이 현실 위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1권 2호, 363~391.
- 이현정·안재웅·이상우 (2013). 다문화 콘텐츠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언론학보>, 57권 3호, 34~57.
- 임도경·김창숙 (2011). 대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및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적 거리감, 외국인 이미지, 한국인 인정조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권 1호, 5~34.
- 전의령 (2015). 선량한 이주민, 불량한 이주민: 한국의 주류 이주·다문화 담론과 반다문화 담론. <경제와사회>, 106호, 238~270.
- 정연구·송현주·윤태일·심훈 (2011). 뉴스 미디어의 결혼이주여성 보도가 수용자의 부정적 고정관념과 다문화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5권 2호, 405~427.
- 좌보경·윤문영·백혜진 (2013). 미디어, 지각된 위험 특성, 위험 인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 발암물질 위

- 혐 이슈를 중심으로. <홍보학연구>, 17권 4호, 72~109.
- 차동필 (2010). 건강 관련 위험에 대한 매스 커뮤니케이션, 대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다차원 건강통제소재가 공중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인문연구>, 58호, 647~674.
- 차동필 (2011). 매스 커뮤니케이션과 대인 커뮤니케이션이 청년 실업에 관한 대학생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11권 3호, 325~348.
- 채형복 (2007).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세계헌법연구>, 13권 1호, 377~406.
- 최미경·나은영 (2015). 블로그 이용자의 자기표현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9권 4호, 163~193.
- 최영신·강석진·김미선·김일수 (2012). <외국인 밀집지역의 범죄와 치안실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하승태·김창숙·유성훈 (2008). 케이블 TV에 나타난 폭력성 연구: 폭력의 맥락화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1호, 200~231.
- 허윤철·임영호 (2015). 외국인 범죄 뉴스 접촉이 수용자의 위험지각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연구>, 26권 3호, 267~302.
- 허찬행·심영섭 (2015). TV 매체가 재현한 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의 현실. <언론과학연구>, 15권 1호, 325~363.
- Allport, G. W. (1954). *The nature of prejudice*. Cambridge: Perseus Books.
- Appadurai, A. (2006). *Fear of small numbers: An essay on the geography of anger*. 장희권 역 (2011). <소수에 대한 두려움>. 서울: 에코리브르.
- Arendt, F., & Northup, T. (2015). Effects of long-term exposure to news stereotypes on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9(20), 2370~2390.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Blalock, H. M. (1967). *Toward a theory of minority-group relations*. New York: Capricorn Books.
- Cohen, J., & Weimann, G. (2000). Cultivation revisited: Some genres have some effects on some viewers. *Communication Reports*, 13(2), 99~114.
- Coleman, C. L. (1993). The influence of mass media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societal and personal risk judgments. *Communication Research*, 20(4), 611~628.
- De Botton, A. (2014). *The news: A user's manual*. 최민우 역 (2014). <뉴스의 시대>. 서울: 문학동네.
- Dobrow, J. R. (1990). Patterns of viewing and VCR use: Implications for cultivation analysis. In N. Signorielli & M. Morgan (eds.), *Cultivation analysis: New directions in media effects research* (pp. 71~83).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 Fleras, A., & Kunz, J. L. (2001). *Media and minorities: Representing diversity in a multicultural Canada*. Toronto: Thompson Publishing.
- Flusser, V. (1996). *Kommunikologie*. 김성재 역 (2001). <코뮤니콜로지: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Foster, N. Cook, K. Barter-Godfrey, S., & Furneaux, S. (2011). Fractured multiculturalism: Conflicting representations of Arab and Muslim Australians in Australian print media. *Media, Culture & Society, 33*, 619~629.
- Gerbner, G. (1969). Toward "cultural indicators": The analysis of mass mediated public message systems. *Educational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17*(2), 137~148.
- Gerbner, G., & Gross, L. (1976). Living with television: The violence profile. *Journal of Communication, 26*(2), 172~194.
- Gerbner, G., Gross, L., Morgan, M., & Signorielli, N. (1980). The "mainstreaming" of America: Violence profile no. 11. *Journal of Communication, 30*(3), 10~29.
- Goldberger, G. (2004). Portrayal of immigrants in newsmagazines. *Migracijske i etničke teme, 20*(1), 7~27.
- Golding, P., & Middleton, S. (1979). Making claims: News media and the welfare state. *Media, Culture & Society, 1*(1), 5~21.
- Golding, P., & Middleton, S. (1982). *Images of welfare: Press and public attitudes to poverty*. Oxford: Martin Robertson.
- Guo, Z., Zhu, J. J., & Chen, H. (2001). Mediated reality bites: Comparing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as sources of perceptions across two communities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3*(4), 398~418.
- Hair, J. F., Black, W. C., Babin, B. J., Anderson, R. E., & Tatham, R. L. (2006). *Multivariate data analysis* (Vol. 6).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Prentice Hall.
- Haynes, A., Devereux, E., & Breen, M. J. (2006). Fear, framing and foreigners, The othering of immigrants in the Irish print media. *Critical Psychology, 16*, 100~21.
- Jiwani, Y., & Young, M. L. (2006). Missing and murdered women: Reproducing marginality in news discourse.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1*(4), 895~917.
- Joslyn, M. R., & Haider-Markel, D. P. (2002). Framing effects on personal opinion and perception of public opinion: The cases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and Social Security. *Social Science Quarterly, 83*(3), 690~706.
- Katz, E. & Lazarsfeld, P. F. (1955). *Personal influence: The part played by people in the flow of mass communic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 Lazarsfeld, P. F., Berelson, B., & Gaudet, H. (1968). *The people's choice: How the voter makes up his mind in a presidential campaign*. 백영민 역 (2015). <국민의 선택: 대통령 선거 캠페인 기간에 유권자는 지지 후보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Mahtani, M. (2008). Racializing the audience: immigrant perceptions of mainstream Canadian english language TV news. *Canadian Journal of Communication, 33*(4), 639~660.
- Mamdani, M. (2005). *Good Muslim, bad Muslim: America, the Cold War, and the roots of terror*. New York: Three Leaves Publishing.
- Mastro, D. E., & Tropp, L. R. (2004). The effects of interracial contact, attitudes, and stereotypical portrayals on evaluations of Black television sitcom characters. *Communication Research Reports, 21*(2), 119~129.
- Morton, T. A., & Duck, J. M. (2001). Communication and health beliefs: Mass and interpersonal influences on perception of risk to self and others. *Communication Research, 28*(5), 602~626.
- Mutz, D. C. (1989). The influence of perceptions of media influence: Third person effects and the public expression of opin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1), 3~23.

- Mutz, D. C. (1992). Impersonal influence: Effects of representations of public opinion on political attitudes. *Political Behavior, 14*(2), 89~122.
- Mutz, D. C. (1998). *Impersonal influence: How perceptions of mass collectives affect political attitudes*. 양승찬 역 (2000). <미디어 정치 효과: 비개인적 영향력>. 서울: 한나래.
- Northrup, T. (2010). Is everyone a little bit racist? Exploring cultivation using implicit and explicit measures. *Southwestern Mass Communication Journal, 26*(1), 29~41.
- Park, E., Scherer, C. W., & Glynn, C. J. (2001). Community involvement and risk perception at personal and societal levels. *Health, Risk & Society, 3*(3), 281~292.
- Park, S. Y., Holody, K. J., & Zhang, X. (2012). Race in media coverage of school shootings a parallel application of framing theory and attribute agenda setting.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9*(3), 475~494.
- Potter, W. J. (1986). Perceived reality and the cultivation hypothe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0*(2), 159~174.
- Potter, W. J., & Chang, I. C. (1990). Television exposure measures and the cultivation hypothe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4*(3), 313~333.
- Roggeband, C., & Vliegthart, R. (2007). Divergent framing: The public debate on migration in the Dutch parliament and media, 1995-2004. *West European Politics, 30*(3), 524~548.
- Romer, D., Jamieson, K. H., & Aday, S. (2003). Television news and the cultivation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ommunication, 53*(1), 88~104.
- Said, E. (1978). *Orientalism: Western representations of the Orient*. 박홍규 역 (2000). <오리엔탈리즘>. 서울: 교보문고.
- Shaheen, J. (2012). *Reel bad Arabs: How Hollywood vilifies a people*. Northampton, MA: Interlink Publishing.
- Sherman, B. L., & Dominick, J. K. (1986). Violence and sex in music videos: TV and rock 'n' roll. *Journal of Communication, 36*(1), 79~93.
- Shrum, L. J., & Bischak, V. D. (2001). Mainstreaming, resonance, and impersonal impact: Testing moderators of cultivation effect for estimates of crime risk.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27*(2), 187~215.
- Slater, M. D., Hayes, A. F., & Chung, A. H. (2015). Injury news coverage, relative concern, and support for alcohol-control policies: An impersonal impact explanation.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20*(1), 51~59.
- Snyder, L. B., & Rouse, R. A. (1995). The media can have more than an impersonal impact: The case of AIDS risk perceptions and behavior. *Health Communication, 7*(2), 125~145.
- So, J., Cho, H., & Lee, J. (2011). Genre-specific media and perceptions of personal and social risk of smoking among South Korea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Health Communication, 16*(5), 533~549.
- Sobel, M. E. (1982). Asymptot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13*, 290~312.
- Stapel, D. A., & Velthuisen, A. S. (1996). Just as if it happened to me: The impact of vivid and self-relevant information on risk judgment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5*(1), 102~119.
- Tyler, T. R. (1980). Impact of directly and indirectly experienced events: The origin of crime-related judgments and behavi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1), 13~28.

- Tyler, T. R. (1984). Assessing the risk of crime victimization: The integration of personal victimization experience and socially transmitted inform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0(1), 27~38.
- Tyler, T. R., & Cook, F. L. (1984). The mass media and judgments of risk: Distinguishing impact on personal and societal level judgm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693~708.
- Van Mierlo, J., & Van den Bulck, J. (2004). Benchmarking the cultivation approach to video game effects: A comparison of the correlates of TV viewing and game play. *Journal of Adolescence*, 27(1), 97~111.
- Vliegthart, R., & Roggeband, C. (2007). Framing immigration and integration Relationships between press and parliament in The Netherland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69(3), 295~319.
- Wendt, C., & Rubin, G. (2009). Explaining increases in Xenophobic outcomes in post-communist Russia. Proceedings 2009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Toronto, Canada. Available at SSRN: <http://ssrn.com/abstract=1450285>
- Williams, D. (2006). Virtual cultivation: Online worlds, offline percep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6(1), 69~87.

투고일자: 2016. 1. 31 게재확정일자: 2016. 3. 20 최종수정일자: 2016. 3. 21

Exposure to Crime New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the Mediation Effects of Perceived Risk

Yun-Cheol Heo

Ph.D. candidate, Pusan National Univ.

Yung-Ho Im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

This paper aims to examine systematically how audiences' exposure to crime news influences thei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particular, the analysis has focused on how the variance in the effects of contacts with crime news on foreigners takes place, according to the types of media and communication favored among the audiences. Also, with perceived risk toward crime as a mediating variable, this research scrutinizes the way crime news on foreigners comes to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mong the audiences. While various news sources and communication channels are influential in strengthening the perceived possibility of crime on the individual level, the results show, television seems to be particularly more effective with regards to the perceived prevalence of crime on the social level (RQ 1). Also, while contacts with crime news through 'dialogic' media rarely influenc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significantly, 'discursive' media and face-to-face contacts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Q 2). Consequently, perceived risk on the social level seems to play the role of full mediation in the process where audiences' contact with crime news through discursive media influences thei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RQ 3). Based on these findings, both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discussed.

KEYWORDS cultivation, differential impact, impersonal influence, multicultural, crime news